전주매일

전주매일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음 1월 7일) 제22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는 전북 기초단체장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북 지역 단체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내 3곳에 첨단농업 지역거점 조성

임실에 청년창업 교육생 실습 임대농장
익산에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연계
군산에 창업·교육 복합공간으로 확장

올해 전북도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 및 귀농인들이 영농창업을 하기 전 첨단농업 경영실습 온실을 임대하여 농업 운영,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3개 시·군에 첨단농업의 지역적 거점을 조성한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작년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임실군에 교육생들을 위한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한다. 국도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까지 0.8ha(4개소)의 첨단농업 온실 준공 예정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교육생들에게 우선 임차한다. 교육생들의 임차기간이 끝나면 만40세 미만의 청년 또는 귀농인 등 임차인을 모집하여 첨단농업의 실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인근 부지에는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함께 신축한다. 임시거주시설에는 총 9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진입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익산시에도 임실군과 같이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통해 첨단농업 지역거점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인근에 임시 거주시설 신축 및 노지 텃밭을 조성하여 청년·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영농정착을 돕는다. 올해 6월까지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0.2ha(1개소)를 조성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시 거주시설은 올해 7월까지 신축하여 8월부터 총 10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올해 7.6ha의 군부대 부지에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 조성과 더불어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들의 창업·교육 복합공간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첨단농업 실습 임대농장은 올해 6월까지 1.2ha(6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가장 큰 지역 거점이 될 것이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예비농업인 실습·실증 재배포장, 귀농·귀촌체험공간, 치유 숲 테마공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신축하여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북도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적 거점과 함께 김제시에 교육 및 기술혁신을 담당할 국가적 거점의 첨단농업 단지를 조성한다. 첨단농업 단지내에 청년창업 실습농장(교육형 1.2ha, 경영형 2.0ha), 임대형 스마트팜(5.7ha) 및 ICT기자재 실증단지(실증온실 2.3ha, 지원센터 0.5ha)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전북도를 스마트 농생명 수도로 이끌 예정이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첨단농업의 지역적 거점을 도내 곳곳에 조성하여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첨단농업을 손쉽게 접하고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교육부터 기술혁신까지 첨단농업을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국가적 거점과 연계해 첨단농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교대, 양(兩)부설초 급식운영비 1억2천만 확보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양(兩)부설초등학교의 급식비로 2019년부터 총 1억2,000만원의 급식운영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교육대학교는 양(兩)부설초등학교의 급식운영비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대학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는 그간 양부설초등학교의 급식운영에 따른 대학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도교육청(인성건강과)의 급식운영비 지원예산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영 총장은 "어려운 대학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1억원의 대학자금을 부설초등학교에 지원해 왔었는데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어 큰 숙제를 마친 듯하다"고 기쁨을 전하며, "그만큼 원활해진 대학재정을 향후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중소기업 氣를 '팍팍'

시, 올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총력 기울이기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연계 기업애로 멀티 컨설팅도 제공

전주시가 지역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확대해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돕고 나섰다.

또한,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정기모임 시에는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기업애로 멀티 컨설팅'도 제공한다.

전주시는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 중소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기 살리기 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올 한해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제품 온라인 홍보 다변화 △오프라인상 지역제품 우선구매 △보조금 지원시, 보조사업자 지역제품 사용 권고 △모임테마별 간담회 추진 △공공기관, 유관기관과 지역제품 구매 WinWin 상생 △지역제품 구매실적, 성과평가 가점지표 반영 △지역제품 구매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지역제품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지역제품 사용 후기 등 짧지만 임팩트 강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제품에 대한 개선사항을 수요자와 소통하는 SNS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역제품 온라인 홍보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바이전주 우수업체 등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과 SNS홍보 방법 안내 등 전문가 교육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공공기관·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역우수제품 구매를 적극 권고하고 지역제품 구매실적을 시 부서별 행정성과평가와 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 평가에 가점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전자부품연구원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기업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해당단체 정기모임 시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해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애로 멀티 컨설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업체 31개사의 42개 품목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해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송하진 도지사,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전북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8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1건당 1,000원씩 적립되며, 적립금은 세계자연기금에 전달되고, 텀블러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도 사용된다.

송 지사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동참할 주자로 송성환 도의회 의장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을 추천해 두 분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각종 회의나 행사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Zero 플라스틱 전북'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다소비 특정구역을 설정, 구역 내 커피숍 업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자제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